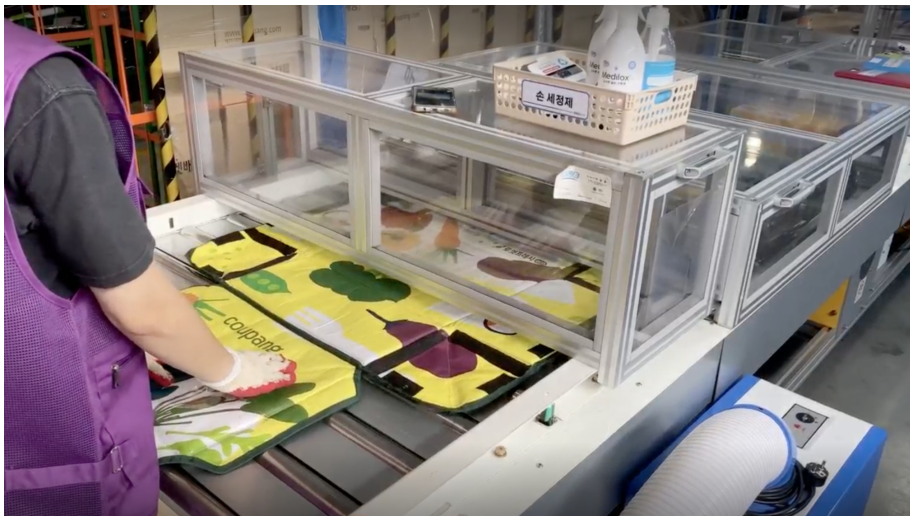


민노총은 노조 세력 확장을 위해 가짜뉴스와 불법선동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일하는 택배기사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23. 4. 24.

-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노조 세력 확장을 위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불법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 24일 택배노조의 집회는 쿠팡과 무관한 외부세력을 앞세워 성실하게 일 하고 있는 다른 택배기사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 택배노조는 그동안 택배대리점주에 대한 불법적인 협박을 일삼고 비노조 택배기사 폭행, 불법점거를 일삼았습니다. 택배노조는 또 다시 쿠팡 사업장에 와서 허위 주장,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쿠팡은 업계 최초로 분류전담인력 수천명을 운영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로켓프레시백은 전문 설비와 인력을 통해 별도의 세척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세척업무를 택배기사들이 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첨부 사진 참조) 또한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는 택배대리점과 택배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CLS가 부당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 CLS는 택배노조가 고객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이어간다면 모든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첨부 사진: 로켓프레시백 전담 인력들이 전문설비를 통해 프레시백 세척을 진행하는 장면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